

평화운동의 현황과 과제

김 두 진(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요약

처음에는 단순히 전쟁 부재에 대한 이해로 시작된 평화의 개념은 점차 확대되어 사회적 갈등과 관련된 대부분의 쟁점을 다 수용해야 할 만큼 다양해졌다. 어떤 의미에서 평화 개념은 혼돈스런 개념으로 변모하고 말았다. 역사적으로 평화운동은 평화 구축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 갈등적 테제를 수용한다 할지라도, 종국적으로 평화운동의 성격에 가장 큰 영향을 요인은 무엇보다 전쟁이라는 변수이다. 뉴테러리즘 이후 평화운동의 우선 순위는 전쟁의 종교적 담론화에 맞설 수 있는 ‘담론 구성’이 우선과제라 하겠다. 평화운동은 시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해될 수 없는 담론을 화해할 수 있는 담론으로 흡수하는 일이 우선이다. 그 이전의 평화운동은 운동이 중요시되었으나 이제는 ‘문명 충돌론’의 우세를 잠재울 ‘대안 담론’(counter-discourse)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I. 서론

평화의 개념은 단순히 전쟁의 부재(不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평화에 대한 논의는 전쟁과 폭력을 배제하는 노력으로부터 시작

되었다. 점차적으로 평화의 의미는 전쟁 이외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평화의 논의로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여 종전에 전혀 평화와 연관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회의 모든 문제를 다 포괄하기까지 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광범위한 평화의 논의와 관련하여 최근의 평화 운동은 1990년 이후에는 성적 권리(sexual rights)의 쟁점까지 포함하게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¹⁾ 이런 맥락에서 살펴 보면, 인간의 삶의 대다수의 모든 쟁점이 다 평화의 문제로 연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평화의 정의는 불가피하게 다양하게 정의되고 해석되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론적으로 평화의 이름으로 어떤 형태의 행동과 조치가 다 가능하며 정당화될 수 있을 것 같다.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운동은 평화와 무관한 운동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게 되었다. 역으로 평화라는 미명하에 실제적으로는 반평화적 운동이나 행위로 나타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평화라는 담론의 전개는 극단적인 상황, 예를 들면 9·11 테러와 같은 뉴테러리즘과 이에 대응하려는 미국과 강대국의 반테러리즘적 제반 행위도 평화의 이름으로 전개될 수 있게 되었다.²⁾

이른바 평화의 개념의 애매모호성을 뛰어 넘어서, 혼돈을 유발시키

1) Leonore Tiefer, "The Emerging Global Discours of Sexual Rights,"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28(2002), pp. 439-444.

2) 김열수, "테러리즘 근절이 어려운 이유: 제도화의 한계와 국제사회의 균열," 『국가전략』, 제3권 3호(2002); 안병진, "9.11 테러와 미국의 외교노선: 연속성과 단절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3집 4호(2003); 이현경, "국제사회의 테러유형, 동향과 국제안보환경," 『평화연구』, 제11집 3호(2003); 채재병, "국제테러리즘과 군사적 대응," 『국제정치논총』, 제42집 2호(2004) 참조.

는 세계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평화를 이해하고 논의하는데 가장 먼저 봉착하는 문제는 평화를 어떻게, 그리고 무엇이라고 정의할 것인가라는 문제일 것이다. 이것은 마치 국제정치 혹은 국제관계 이론에서 여러 현상과 개념을 구성주의(constructivism)적 시각에서 설명하려는 시도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성주의적 접근에서는 전쟁이나 안보의 문제는 다분히 ‘사회적으로 구성된’(socially constructed)된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³⁾ 이처럼 평화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의 문제는 곧 평화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불가피한 연관이 있다. 평화의 개념 구성은 후속적인 평화운동의 성격과 방향을 형성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평화 운동의 성격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살펴 보면서, 현 시대적 상황에서 어떤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인가를 살펴 보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국제사회의 변화로 현 시대의 평화운동이 반전 문제에 있어서 사회주의 종언 이전의 ‘이데올로기 시대’의 평화운동에 비해 더욱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을 인지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역사의 종언’의 담론으로부터 ‘문명충돌론’으로 휩싸이도록 방치할 경우, 다시 말해서 평화운동이 종교적 담론에 연계될 경우 평화운동의 실효는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먼저 평화의 개념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볼

3) G. John Ikenberry and Andrew Moravcsik, "Liberal Theory and the Politics of Security in Northeast Asia," Conference on Security and Securitization: How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Are Securitized, Hosted by Ilmin International Relations Institute, Korea University Sponsored by the Ford Foundation, Millenium Seoul Hilton Hotel, Seoul, Korea(January 30, 2004), pp. 10-11.

것이다. 그리고, 국제평화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그 성격이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또한 이 논의의 현실적 적실성을 위해 평화연구 및 평화운동이 21세기에 들어서 나타나는 전지구적 사건 - 예를 들면 9·11 테러리즘 이후 - 이 전통적인 평화운동의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가를 분석함으로써 평화운동의 현 시대적 과제를 밝혀 보려는 것이다.

II. 평화의 개념구상(peace concepts)

우선 평화의 개념은 대체적으로 전쟁과 관련되어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쟁부재의 삶의 세계를 구현하려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평화의 실현이라는 목표는 단순히 전쟁 혹은 전쟁과 관련된 개념들이 새롭게 정의되면서, 포괄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을 드러내게 되었다. 예를 들어 냉전 및 그 이전의 역사적 시기에서 “안보”의 의미는 전통적인 군사안보관계에 국한되어 이해되었다. 즉 탈냉전의 시대가 도래하고 양극체제가 와해되면서, 안보라는 경험은 상당히 변화하여, 냉전의 전지구적 안보 개념으로부터 지역적 범주로 좁혀져 갔다. 초국가적 위협이란 것도, 그 이전에 언급되었던 군사안보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환경 문제, 경제문제, 그리고 유행병 등의 문제가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세계정치의 관심은 그 이전의 비안보적 쟁점이었던 민간적인 쟁점에 더 큰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다.⁴⁾ 각국의 정부는 탈냉전하에서는 비(非)안보적 이슈에 더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4) Ibid., p. 12.

이런 맥락에서 평화의 개념과 평화운동의 개념은 본래적 개념에서 벗어나 상당한 정도로 무제한적 혹은 무작위로 정의될 가능성도 내포하게 되었다. 이처럼 실제로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 유사한 단어에 대한 이해는 종종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평화의 정의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어 왔으며, 또한 평화라는 것은 바람직하고, 그 목표 달성이 가능한 것인가?

1. 평화 개념의 고찰

평화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열망해 왔던 조건이다. 그러나 평화란 달성이란 매우 도달하기 힘든 목표이기도 하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시작과 함께 사람들의 관심은 직접적인 폭력으로부터 간접적 혹은 구조적 폭력으로 관심이 바뀌기 시작했다. 후자의 개념은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체계를 통하여 사회에 도입된 폭력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소극적 평화’ (negative peace) 대 ‘적극적 평화’ (positive peace) 라는 대비와 또 다른 맥락에서 분석되어야 했다.

소극적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부재하는 상태’ 혹은 ‘폭력이 행사되지 않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즉, 실제적이고 조직적인 군사적 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지칭하고 있다. 레이몽드 아롱의 정의에 의하면, “정치적 단위체간의 폭력적 경쟁의 방식이 다소간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⁵⁾ 갈통의 정의는 전쟁과 평화 혹은 국제 정치의 맥락에서 가장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즉 평화란 전쟁

5) Raymond Aron, *Peace and War*(New York: Doubleday, 1966).

혹은 조직적 폭력의 부재할 때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로마 시대의 평화(Pax)라는 것도 로마 군단의 법률적 장치 혹은 군사적 힘에 의해 유지되었던 ‘비저항’의 상태, 묵종, 및 외부적 폭력의 부재라는 의미에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 억압이라는 희생을 치르고서야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었다.⁶⁾ 소극적인 평화의 문제점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전쟁으로 회귀하지 않는다는 어떠한 보장도 없는 상태를 평화상태로 간주할 수 있느냐 라는 점이다.⁷⁾

〈표 1〉 평화의 정의: 차원과 세부 영역

평화의 차원	평화의 세부 영역
개인의 평화	1) 자기존경 2) 사랑, 용기 및 희망의 내적 자원
개인간(inter-personal) 평화	1) 타인에 대한 존경 2) 신뢰, 보살핌, 정의의 관계형성
집단간/국가적 평화	1) 국가내의 다른 집단에 대한 존경/신뢰 및 관심의 관계형성 2) 정의(正義) - 압제와 차별의 부재
국제적/전지구적 평화	1) 다른 국가에 대한 존경 2) 전체 인간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관심의 관계형성 3) 정의(正義) - 국가간의 비착취적인 관계형성
인간과 지구간의 평화	1) 자연환경에 대한 존경 2) 인간에 의한 지구보존적 삶의 영위 - 단순한 삶의 양식을 보존하고 지향하는 것

*출처: Loreta, N. Castro, “Peace and Peace Education: A Holistic View,” in Choue(1999), p. 170 도표를 재작성

6) David P. Barash, “Historical Views of Peace,” in Choue, Young Seek(ed.)

다른 한편으로 요한 갈통(Johna Galtung)에 의해서 적극적 평화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이것은 ‘구조적 폭력의 부재’로 재정의되었다. 이것은 한마디로 사회적 및 문화적 제도로부터 연유되는 억압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부여될 수 있는 경제적 기회, 평등, 혹은 심리적 아이덴티티를 거부하는 구조적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⁸⁾ 이러한 예들은 곧 빈곤, 기아, 정치적 탄압, 환경피해, 성적 차별, 정치적 압제 등을 의미한다. 시대적으로는 고대 이집트 혹은 고대 로마시대의 노예제도 및 폭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반란이 거의 없었고, 장기간 전쟁이 부재했던 시기였지만, 그들의 평화는 기껏해야 소극적인 평화에 불과한 것이었다. 갈통은 구조적 폭력하에서, 그러한 구조적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선한’ 사람 내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본다는 사실이다. 즉 개인들은 그 구조적 속에서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정규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인간들에게 상당한 해를 끼치고 있는 구조(setting)에 무의식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⁹⁾ 소극적인 평화는 평화를 지키는 것(peace-keeping; 예, 전쟁방지), 평화를 회복시키는 것(peace-restoring, 예, 전쟁이 발생했을 시에)에 관심을 가지는 반면에, 적극적인 평화는 평화를 구축하는 것(peace-

(1999), *World Encyclopedia of Peace*, 2nd ed., vol. 4(New York: Oceana Publications, Inc and Seoul: Seoul Press), p. 201.

7) 김승채, 이학근, 『평화와 평화상』(서울: 서울평화상 문화재단, 2004), p. 19.

8) 갈통에 의하면, 남편이 아내를 때릴 때는 개인적인 폭력이지만, 수많은 남성들이 수많은 여성을 동일하게 취급을 하게 된다면 이는 구조적 폭력이 되는 것이다.

9) Johan Galtung, "Twenty-five years of peace research: Ten challenges and responses,"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22(1985)참조.

building), 즉 조화롭고 비착취적인 사회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나아가서 평화구축의 노력이란 전쟁과 무관하게 이러한 목표를 향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카스트로는 평화의 개념을 확장하여 여러 차원에서 가능한 평화의 존재를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는데(표 1 참조) 이는 앞서 언급한 평화의 개념을 포괄하면서, 체계적으로 평화 개념을 잘 정리하고 있다. 카스트로는 평화를 다섯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1) 개인의 평화(자기 존경/ 사랑, 용기 및 희망의 내적 자원) 2) 개인간 평화(타인에 대한 존경/ 신뢰, 보살핌, 정의의 관계 형성, 3) 집단간/ 국가적 평화(국가내의 다른 집단에 대한 존경/ 신뢰 및 관심의 관계 형성/ 압제와 차별의 부재 국, 4) 국제적/전지구적 평화(다른 국가에 대한 존경/전체 인간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관심의 관계형성/국가간의 비착취적인 관계형성, 5) 인간과 지구간의 평화(자연환경에 대한 존경,/인간에 의한 지구 보존적 삶의 영위/단순한 삶의 양식의 보존과 지향, 등으로 평화 개념을 세부적으로 구성하여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블록-우트네는 평화의 개념에 대하여 페미니스트적인 관점에서 공식적(organized)폭력과 비공식적(unorganized) 폭력의 의미에서 유사한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그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크게 분류한 후, 두 형태의 평화를 각각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다시 세분화하였다. 즉 소극적 평화를 개인적 폭력, 신체적 폭력, 직접적 폭력의 부재로 보고, 1) 비공식적 측면에서 아내의 구타, 강간, 아동 학대 등의 부재, 2) 공식적인 측면에서 전쟁의 부재를 평화로 보았다. 다른 한편으로 적극적인 평화에서 1) 비공식적인 측면을 삶의 기회를 불평등하게 만드는 구조적 불평등의 부재, 기회와 자기 성취의 자유를 박탈

하는 구조적 억압의 부재, 2) 공식적인 차원에서 삶의 기회를 박탈하는 한 나라내에, 나라간에 구축된 경제구조의 부재, 오염과 방사능 방출에 의한 자연 손상의 부재, 자유 언론과 노조결성에 대한 억압의 부재로 설명하고 있다.¹⁰⁾

2. 평화와 인간 안보

탈냉전 시대의 도래로 평화의 관심은 냉전시대의 평화연구의 대상과 방법과는 달리 나타나기 시작했다. 핵전쟁의 공포 및 전쟁 뿐만 아니라 대량살상 무기에 의한 전쟁발발 위험성이 악화되면서 평화의 문제는 전쟁방지라는 본래적 의미에서 벗어나면서 보다 포괄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개념일 것이다. 국가안보와 인간안보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국가안보, 혹은 군사 안보는 인간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기 보다는 제약해 왔던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들이 속한 국가 혹은 정부에 의해 국민들의 안전 혹은 생명이 위협받기까지 한다.¹¹⁾ 국가안보는 인간 안보를 위한 필요조건일 수 있

10) B. Brock-Utne, *Feminist Perspective on Peace and Peace Education*(New York: Pergamon Press, 1987), p. 47; Loreta N. Castro, "Peace and Peace Education: A Holistic View," in Choue Young Seek(ed.) *World Encyclopedia of Peace*, 2nd ed, p. 165참조; 강양희 외, 『한국여성 평화운동에 대한 의식과 발 전방향』(한국여성 개발원 2000년 10월) 참조.

11) 1990년-1999년 사이에 정부에 의해 죽은 사람들이 약 1억 7천 4백만명에 이르고 있다.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보고에 의하면 2000년 말 현재 세계 192개국 중에서 107개국 3억 6천여명이 제한된 자유만 보장되거나 자유가 전혀없는 국가에서 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신화, "탈북자와 인간안보," 『사상』(2001년 여름호), p. 199.

으나 국가 내에서 갈등이나 분쟁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만으로 인간 안보를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¹²⁾

인권 개념이 천부인권에 기초한 선언적 의미라고 본다면, 인간 안보 개념은 인권을 보호할 주체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인간안보라는 용어는 1994년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의 연례 보고서 형식으로 발간되는 ‘인간개발보고서’ (the 1994 Human Development Report)의 발표를 계기로 구체적으로 개념화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인간 안보 개념이란 인간의 삶의 질을 위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으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국가의 영토를 지킨다거나 외국정책으로부터 국익을 보호하는 것, 또한 핵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것 등의 협의의 개념으로서의 안보가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다. 이럴 경우 인간안보의 주요소는 공통 관심, 상호의존성, 사후보다는 사전 예방의 효과성, 인간중심성 등이며 경제, 식량, 건강, 환경, 개인적, 공동체, 정치적인 구체적인 측면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¹³⁾

나아가서 인간안보의 개념은 탈냉전기의 안보상황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대 속에 종래의 국가안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인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인간안보는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의 반작용의 산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외형적으로 국가안보는 국가를 보호하는 것, 즉 국가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인 반면에, 인간안보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이라 하겠다.

12) 강양희 외, 앞의 글, pp. 16-17.

13) 위의 글, pp. 18-19.

국가가 당연히 개인들의 안보를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인 사실은 국가의 힘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가 개인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안보와 국가안보는 명백히 상충되는 긴장관계 내지 제로-섬의 관계로 가정할 수 있게 되었다.¹⁴⁾ 예를 들어, 아시아의 환율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을 기초로 한 IMF 혹은 세계은행의 조치에 따라 한국정부의 긴축정책은 어느 정도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대량실업 사태의 유발로 생기는 인간안보의 위기는 역으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인간안보 개념은 학문적인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현실정책으로 나타나 구체적인 현실화에 여러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다. 이들 나라들로 대표적인 예는 캐나다, 노르웨이, 일본 등을 들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UNDP의 정의와 비교하여 협의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단지 인간안보를 국가안보의 대체개념으로 보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인지뢰 금지를 규정하는 오타와 협약(the Ottawa Convention)을 들 수 있다. 더불어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아일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등도 대인지뢰 금지, 전쟁이나 무력분쟁으로부터 어린이의 보호 등 인간안보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일본의 경우는 인간안보의 개념을 훨씬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1993

14) 정웅,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국제정치논총』, 제 44권 1호(2004), pp. 40-41. 인간안보의 개념의 타당성과 유용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주지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안보 개념이 자칫 국가주권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부작용의 가능성도 잠재되어 있다. 즉 인권을 위해 ‘주권을 넘어’ 이루어지는 군사개입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최근의 예로 부시정부의 이라크 개입의 정당성을 이라크 국민을 해방시킨다는 인간안보의 논리가 자주 거론되기도 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년 3월 UN에 인간안보기금(Trust Fund for Human Service)을 설립하고 420만 달러를 기부하고 이어 2001년 8월에 721만 6천달러를 추가지원하였다. 2003년 2월 현재 일본은 NU에 기탁한 기금은 총 1억 7천만달러에 이르러 세계최고를 기록하였다.¹⁵⁾

나아가서 인간안보는 개인 단위의 인간안보에 대한 최소 기준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확립하는 것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주제는 인권의 문제와 관련하여 세계화의 결과로 국민국가와 시민사회가 국민 또는 시민에 대해 안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코소보 사태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을 통해 국제사회는 인권, 핵, 환경문제의 현안 문제에 대해 주권을 넘는 국제사회의 개입이 가능하다는 틀을 만들어 내고 있다. 비록 추상적이라 할지라도 현재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인간안보에 대한 기준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want),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violence)의 선언이다. 그리고, 2000년 유엔 밀레니움 정상회담(NU Millenium Summit)에서 인간안보위원회(Commission for Human Society)가 설치되면서, 비로소 인간안보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근간이 마련된 것이다.¹⁶⁾

15) 위의 글, pp. 36-37.

16) 이정옥, “여성인권의 글로벌 스탠더드와 성매매 종사 여성의 인간 안보: 한국 기준 여성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0권 1호(2004), pp. 201-202.

Ⅲ. 평화운동의 기원과 국제평화운동: 주요 국가 및 한국을 중심으로

1. 평화 운동의 기원 및 발전

사상적인 의미에서 보면 평화운동의 기원은 종교적 기원에서 비롯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첫 3 세기 동안의 평화지상주의가 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시기는 예수의 부활승천 이후부터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시기(313년)까지를 지칭한다. 평화지상주의(Pacifism)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의 폭력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보다 큰 폭력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작은 폭력도 결코 용인될 수가 없다. 이것은 폭력이 집단화된 전쟁에 대한 반대 뿐만 아니라, 살인과 살상을 반대하는 것까지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지상주의도 근본적으로 동기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시대적으로 처한 상황에 의해 하나의 집단운동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다양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의로운 전쟁(Just War, bellum justum)의 평화론은 중세기 역사 전체를 통해 기독교 세계의 표준이론이 되어 왔다. 그러나 중세기를 지배하던 정의로운 전쟁론은 호전적인 정복주의적 십자군 전쟁으로 나아가면서 기독교 내부에서 다시금 전쟁 아닌 평화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게 만들었다.¹⁷⁾

19세기의 평화운동은 정부의 외교정책 혹은 군사정책을 수정토록 하

17) 박종화,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평화사상과 평화운동,” 최상용 편, 『현대평화사상의 이해』(서울: 한길사, 1992), pp. 87-118.

는 노력과 관련되어 있었다. 따라서 법치주의적 민족국가의 시민들에 의해 평화운동이 주도되었다. 물론 평화협회의 이데올로기와 전략은 계급, 성(gender), 종교적 연계와 같은 조건들에 의해 그 양상을 달리 했다. 그들은 전쟁을 종식시키거나, 임박한 전쟁을 방지하고, 나아가서 세계질서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갖도록 동시대인을 교육시키는 일 등으로 평화운동을 전개시키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1815-1816년 나폴레옹 전쟁 이후 영국과 미국에 “평화의 친구”(friends of peace)라는 평화단체가 설립되었다.¹⁸⁾

따라서 근대적 의미의 국제평화 운동은 ‘세력균형’ 정책이 여전히 주요 국제관계의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던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되어 있다. 즉, 국제평화운동은 국제적 이해관계에 얽힌 전쟁이나 몇몇 강대국의 결정과 간섭이 아닌 유럽 국가 간의 협약, 중재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영구적인 세계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한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에서는 1815년부터 영국에서는 1816년부터 각각 평화협회가 결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1848년초까지 각국에서의 평화활동은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끄는데 실패했고, 별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최소한 1848년까지 국제평화운동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반면에 1843-1863년 동안에 개최된 일련의 국제평화대회(Congress of Nation for International Peace Movement)를 통해 평화운동은 비로소 국제적인 관심을 모으면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러한 운동을 1848년부터 주도한 지도자들 중에서 주요한 인물로는 리처드 콕슨

18) Sandi Cooper, “Peace Movement of the Nineteenth Century,” in Choue, Young Seek(ed.), *World Encyclopedia of Peace*, 2nd ed, vol. 4(1999), pp. 241-245.

(Richard Cobden, 1804-1865)을 들지 않을 수 없다.¹⁹⁾ 그의 역할은 각 평화운동협회의 지도자들과 서신교류 및 직접적 조언을 통해 제시된 원칙과 방향이 궁극적으로 국제평화대회에서 수용되기 시작하면서 평화운동이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는 점에 있다.²⁰⁾

20세기 후반부터는 평화 및 평화적 갈등 해결에 대한 연구가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그러한 제도는 사적 혹은 공적인 이니셔티브에 의해, 때로는 양쪽의 공동주도에 의해 탄생되었다. 초기의 기관들은 북미, 프랑스,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 설립되었다. 특히 오슬로의 국제평화연구원(PRIO, The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그리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는 이 분야에 있어서 가장 역사가 깊고 잘 알려진 연구소이다. 전자가 사설 연구소임에 비해서, 후자는 국제적이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공연구기관이었다. 초기의 평화연구는 윤리적이고 금전적인 측면에서 정부간 기구, 특히 UNESCO로부터 지원되었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평화연구 기관과 프로그램은 대학내에 설립되었다. 미국의 경우, 평화 및 평화연구 기관의 확대와 함께 미국평화연구소(USIP, the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의 출현은 더욱 주목받을 만한 것이었다. 그것은 연구소의 이름에 ‘평화’라는 명칭이 공공연히 들어갔고,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연구기금을 지원받는 연구기관이 되었기 때문이다.²¹⁾

19) 여기서 리처드 콕든이 평화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인물로 보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 두 가지 시각이 있음을 먼저 주지해야 할 것이다.

20) 최현미, “리처드 콕든(Richard Cobden)과 19세기 국제평화운동과의 관계,” 『대구사학』, vol. 72, (2003), pp. 349-386.

21) Peter Van Den Dungen & Lawrence S. Wittner, “Peace History: An

유럽의 평화운동의 역사와 배경은 나라마다 상이하지만 대개 19세기 말엽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당시의 평화운동은 왕정과의 대립 구도에서 시민사회의 보호를 위해 나타났으며, 이 평화운동은 자유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적 영향력면에서 미약했다. 제 1 차 세계대전 시기에 이들은 징집거부운동을 벌였으나 평화운동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특히 독일의 경우, 히틀러 나치의 집권이후 가혹한 탄압을 받게 되었고 제 2 차 세계대전으로 다시 평화운동은 침체기에 빠졌다. 50년대초 독일의 평화운동은 산발적이었으나 1956년 NATO 가입을 계기로 다시 활성화되었다.

영국에서는 1958년 조직된 “핵무기 감축을 위한 캠페인”(CND,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이 평화운동의 주축이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 다른 부문의 사회운동들이 발전하면서 평화운동은 상대적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독일에 서도 50년대말 영국의 CND의 영향을 받아 여타 평화운동단체들이 참여하면서 평화운동의 구심점을 다시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60년대에 접어들면서 평화운동 자체는 여타 다른 사회운동과는 달리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 무렵 반전운동은 주로 학생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학생운동의 영향력은 가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지대한 것이었다.

침체를 면치 못하던 평화운동의 성격은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계속되었으나 독일의 경우 학생운동의 영향으로 보수당이 정권에서 물러나고 사민당이 집권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평화운동은 갑자기 성격변화를 일으켜 평화운동 그 자체보다는 급진적인 좌파와 무정부주의자들에 의한 테러행위로 나타나게 되었다. 즉 평화적인 수단 보다는

Introduc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40:4(2003), pp. 371-372.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에 의한 사회개혁이 시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럽 각국의 입장은 매우 단호한 것이었고, 비상대권 발동을 통해 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운동은 직접적인 대중적인 운동의 형태에서 학문적인 연구작업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이런 흐름과 함께 영국의 CND도 평화운동의 지지세력을 동원하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어 대중동원 보다는 음악회 등의 문화행사로 변신하게 되었다.²²⁾

그러나 1970년대후반부터 다시 영국과 독일에서 평화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반하여 NATO는 구소련의 SS-20에 대항하여 Pershing II 중거리 미사일, 중성자 폭탄, 크루즈 순항 미사일 등 최신에 무기를 배치한다는 정책을 폈다. 이에 대한 반대 시위는 유럽전역으로 확산되어 CND의 활동도 활성화되어 1982년에는 무려 25만명 이상의 회원으로 증가하는 평화운동의 열기를 드러냈다. 1980년대 유럽에서의 평화 운동은 그 규모와 동원력에 있어서 훨씬 조직적이었고,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사회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이후 냉전체제의 붕괴로 평화운동은 다시 약화의 국면에 접어들게되었다.

그러나 이런 평화운동의 발전 과정에서 과학자들의 평화운동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냉전의 상황에서 군사적 대립이 고조되어 미소 양진영이 원폭 및 수폭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세계가 전쟁의 위기로 질주하는 상황에서, 지식인들의 아인슈타인과 같은 지식인이 동참하는 평화운동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1948년 폴란드의 우로크라우

22) 차명제,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의 활성화 가능성,” 『한독사회과학논총』, 제 4호(1994), pp. 217-214.

에서 ‘평화 옹호를 위한 세계 지식인 회의’, 다음 해 3월 뉴욕에서의 ‘세계 평화를 위한 문화인, 지식인 회의’, 이어서 4월의 ‘평화 옹호 세계대회’가 연이어 열렸고, 많은 과학자들이 동참했다. 이들 과학자들 사이에 평화운동의 방식과 견해의 차이가 있었다. 이들 과학자들의 평화운동에는 미국의 원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오펜하이머, 동일한 위상의 과학자라 할 수 있는 소련의 사하로프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과학자들의 역할이 실제로 얼마나 평화정책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하로프의 평화운동의 경우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급기야 소련연방의 붕괴와 함께 새로운 러시아연방의 탄생으로 이어지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²³⁾

여기서 우리는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들 국가의 평화운동의 현황과 성격을 사례별로 살펴 보고자 한다.²⁴⁾

2. 주요 국가별 평화 운동의 성격

1) 유럽의 사례: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태리, 벨지움

(1) 영국: CND

영국의 평화운동은 1960년대 - 60년대초 냉전의 상승 기류를 타고 핵실험과 핵무기 제조의 경쟁의 와중에서 전개되기 시작하였으나

23) 오진곤, “전쟁과 과학자의 평화운동,” 『과학사상』, 15호(1995 11월), pp. 150-152.

24) 평화운동의 역사적 추세와 관련하여 유럽국가를 먼저 언급한 이후 여타의 국가로 설명할 것이다.

1980년대 냉전체제의 종언과 함께 거의 종식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2001년 9·11 테러이후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반테러리즘과 이라크전 참전을 계기로 새로운 움직임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라크전은 EU 국가내의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이라크전 불참의 국가군과,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연합국간의 대결 국면으로 나타나는 큰 이견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급기야 EU 주요 유럽회원 국가들간의 갈등 양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영국의 대표적인 평화운동의 모체였던 CND는 전후 영국 시민운동 단체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잘 알려진 저항단체(protest group) 이었다. 평화운동의 시작 시기였던 50년대 CND는 보수당 정부의 방위 정책중 특히 핵정책에 대한 불만의 표출 과정에서, 노동당의 우익지도부와 당내 좌파 진영간의 갈등, 그리고 당좌파 내부의 분열 양상을 드러냄으로써 영국 평화운동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CND는 결국 전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보수당과 노동당 정부들이 지속적으로 핵무기 정책을 지속하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에서 CND는 실패한 사례이며, 특히 노동당 정치에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CND는 운동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비정치성과 단일 이슈에 대한 집착하는 집념을 보여 왔다. 그러나 평화운동으로서 CND는 불가피하게 정치적 함의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²⁵⁾

고세훈에 의하면, CND 운동은 초기부터 도덕적으로 유발된 다양한 계층, 다양한 부류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중장기 운동의 형태를 유지하

25) 고세훈, “영국의 평화운동: CND의 부침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28호(2002 겨울호), pp. 141-165.

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합의’의 형성이 어려웠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데올로기적 분석과 연계가 부족했고, 나아가서 노동운동과 체계적 연계가 없었다는 점이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평화운동이 고립된 단일 이슈 운동에서 벗어나 실천과 이념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고립된 단일 이슈 운동에서 벗어나 실천과 이념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단순한 평화주의 혹은 도덕적 주장에 머물수 만은 없다. 무엇보다 국내,외의 정치경제적 질서를 포함한 체제차원의 문제제기와 비핵운동과 필연적 관련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냉전 소멸 이후에도 영국의 평화운동이 핵문제를 넘어서서 제 3 세계의 전쟁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그 관심이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²⁶⁾

사회운동과 평화운동은 기존질서에 대한 저항운동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경우는 상당히 반체제적인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평화운동은 이익단체의 로비활동과 같은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양쪽 측면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평화운동은 기성제도에 상당히 얼마간 통합이 되어 있다.²⁷⁾ 그러나 여기서 평화운동이 본래적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탈이데올로기적인 양상을 띠게 됨으로써 진정한 평화운동으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을

26) 위의 글, pp. 166-167.

27) 강명세, “네덜란드의 신정치운동: 평화운동,” 『경제와 사회』(1996 여름호), pp. 96-97.

것이라는 전통적 인식의 경향에 비해, 위의 주장은 평화운동의 현실적 업적과 성취의 면을 강조한 나머지, 평화운동의 이데올로기성과 정치성의 연계의 필요성을 부각했다는 의미에서 매우 흥미로운 문제 제기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 독일: AK

과거 역사적인 측면에서 독일에서 1860년에서 1890년 사이에 평화운동은 의회에서도 거론되기도 하였으나 조직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 활동을 거두지 못했고 별로 일반인의 의식속에 정착되지 못했다. 반면에 독일 외부에서는 민족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측면에서 계속 발전되어 확실한 절차를 확립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비스마르크 시기의 독일을 살펴 볼 때 평화정책적인 사고가 거의 부재한 상황이었다고 본다. 그것은 유럽이 평화를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 보다는 동맹국을 상실할지 모른다는 가능성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다.²⁸⁾

탈냉전이후 독일의 통일은 근본적으로 사회운동 부문을 크게 변형시키지 못했다. 사회운동의 저항활동은 통일이라는 평화적인 혁명 기간 동안과 그 이후의 기간 동안 몇가지 동기 유발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견고한 하부조직과 상당한 수의 추종자들에 의해 다시 모멘트를 찾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의 사회운동은 상당히 안정성을 보이고 있는 편이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의 사회운동과 비교하여, 그 이후에 나타나는 후속의 사회운동의 양상은

28) 강미현, "Bismarck 시대 독일의 평화운동과 제국창건이 유럽에 미친 영향," 『부산사학』, vol. 23(1992), pp. 246, 281-282.

견실한 조직을 기반으로 공공의 토론과 정책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본다.²⁹⁾

독일은 70년대 후반부터 여러 평화 운동 단체들이 조직되면서 평화 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특히 독일은 동독과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라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유럽의 어느 국가에 비해 심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의 어느 국가보다도 평화운동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이후 보수 정권이 등장하고, 그 당시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사회경제체제의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사비의 대폭적인 삭감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에서, 평화운동은 그 열기가 식게 되어 다시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독일의 경우는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기독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치적인 색채를 가진 단체들이 모인 AK가 조직되어 특히 본에서 평화시위를 주관하였다. AK는 일종의 협의체로 독일전역의 대규모 시위만을 관장하였다. 이들 조직은 2천여개 이상의 지역 조직으로 구성되는데 90% 이상은 10 여명 내외의 군소 평화운동단체가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 주요 몇 개의 정치집단 및 종교조직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의 경우는 Pax Christi와 같은 카톨릭단체가 평화운동을 참여한 적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개신교가 평화운동에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독일의 개신교는 50년대 이래 독일의 재무장, 핵무기,

29) Dieter Rucht, "The Challenging Role of Political Protest Movements," in Herbert Kitschelt and Wolfgang Streek(eds.), *Germany: Beyond the Stable State*(London: Frank Cass Publishers, 2004), pp. 153-176.

안보 정책 등에 반대했고, 평화주의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둘째는, 환경운동과 대안을 추구하는 집단으로서 여타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70년대 지역단위 환경운동을 중심으로 출발했으나, 전국적인 저항운동들이 조직되면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 나갔다. 그 결과 녹색당과 같은 정당이 출현하게 되고 1983년 총선에서 5.6%를 획득해 독일 의회에 진출하기 까지 했다. 셋째로 독일공산당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현실 정치에서는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나, 특정 부분에 있어서 특히 노동조합에서의 그들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마지막으로 Autonomie라는 무정부주의적 급진 집단들이 있으며, 이들은 이론 보다 행동과 실천을 강조한다. 또한 여성들을 중심으로한 평화운동에의 참여 역시 현저한 편이나, 이들이 노동조합이나 정당과의 연계는 아직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³⁰⁾

(3) 네덜란드: 신정치운동으로서 평화운동

네덜란드 평화운동은 1960년대 유럽에서 새롭게 태동한 신사회운동의 하나로서 평화운동이 나타났다. 그것은 환경운동, 평화운동 및 반핵운동과 같은 커다란 신정치 운동의 한 부류로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서구민주주의가 경험한 놀라운 경제성장과 번영의 결과로 새로운 가치체계를 가진 세대의 등장을 의미한다.

네덜란드는 평화운동에 있어서 오랜 전통을 갖고 있었다. 첫째, 무정부주의적 정신에 입각한 반군사적 평화운동이 있다. 둘째, 사회주의적 평화운동으로 비무장운동이다. 셋째, 기독교 평화운동으로 도덕적 및

30) 차명제, 앞의 글, pp. 226-227.

윤리적 기초에서 전쟁과 폭력을 반대해 왔다. 넷째는 여성의 평화운동을 들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평화운동은 신사회 운동의 시각에서 기성의 관료주의적 가치에 대항하는 또 하나의 대항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나아가서 평화운동은 공공정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집단의 행위로 이해되었다. 예를 들어, 평화운동의 주요 의제의 하나인 반핵운동이 어떤 결과를 낳건간에 평화운동의 진정한 의미는 새로운 사회정치 질서를 만들어 내는데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평화운동은 반체제운동은 아니었으며, 기존 제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문화적 가치를 변혁시키려는 정치운동이었다.

네덜란드의 평화운동은 15개의 단체로 구성되어 주도되었다. 대개의 운동은 1960년대 후반 유럽에 팽배했던 반체제운동의 와중에서 태어났다. 주요한 사실은 네덜란드의 평화운동을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조직은 교회 평화협의회인 IKV(범교파연합)이다.³¹⁾ 이 조직은 카톨릭 교회를 포함하여 대규모 교회들이 연합하여 1966년에 결성된 단체이다.

네덜란드의 평화운동은 1979년 미소 냉전의 대립시기에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의 외무 및 국방장관회의에서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영국 및 네덜란드에 퍼싱 II 108 기와 크루즈 미사일 464 대를 1983년부터 배치한다는 사실에서 결정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계획은 평화협의회로 하여금 반핵문제에 운동의 초점을 맞추는 계기가

31) 기독교전통은 IKV를 통해 강화되고 조직화되었다. IKV는 1966년 7개 교단(카톨릭, 칼뱅교, 네덜란드 개혁신교회 그리고 군소교단)의 참여로 구성되었다. 원래 IKV의 탄생은 1966년 네덜란드의 주요 프로테스탄 교회인 네덜란드 개혁신교회가 핵무기의 사용을 거부한다는 성명에서 출발하였다.

된 것이다.

1980년대초에 50만명 이상을 동원할 정도로 강력했던 네덜란드의 평화운동은 정치적으로 세력화하는데 실패하였다. 이것은 독일의 평화운동이 독일의 녹색당이라는 정당구성과는 대조되는 점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네덜란드 특유의 사회균열구조의 정치적 타협방식에서 기인하는 것이다.³²⁾ 독일의 평화운동이 녹색당을 통해 정치권으로 진입한 반면, 네덜란드의 경우 평화운동이 대변하는 사회균열의 요구를 체제내로 수용하고 순화시켰다.³³⁾ 정치제도적 측면에서 비례대표제와 다당제의 정치체제였기 때문에, 정치세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 배경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기성정당은 이들 세력의 정당화에 반대하였다. 대신에 기성정당이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네덜란드의 계급갈등은 심각하지 않았고, 네덜란드의 복지국가의 제도화 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정치의 요구는 체제내로 순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³⁴⁾

(4) 이태리

이태리의 평화운동의 주요 세 행위자의 이니셔티브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당과 노동조합과 같은 정치적 행위자, 카톨릭교

32) 네덜란드는 독일보다는 스웨덴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프랑스나 영국에서처럼 계급갈등이 네덜란드의 가장 중대한 갈등은 아니다. 시민당은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 급진적이지 않다. 이미 사회적 갈등은 복지국가의 제도화를 통해 조정되어 왔고, 이러한 경험은 다른 사회균열적 문제의 해결에 하나의 근간이 되고 있다.

33) 강명세, 앞의 글, pp. 104-107.

34) 이런 면에서 네덜란드는 스웨덴의 사회균열 수용의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이미 네덜란드의 신정치균열과 기성의 정치균열은 서로 독립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상당히 상호작용의 과정을 밟아 온 것으로 본다.

회 그리고 국가이다. 이들이 대표하고 있는 이익의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평화문제에 관한 이슈에 있어서 많은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정당은 국제적 쟁점에 관한 시위를 지원했다. 몇몇 노동지도자들은 무기의 생산과 판매에 반대하였다. 카톨릭 교회는 군사적 목적의 예산 사용을 반대하는 의미에서 세금 거부 운동 그리고 양심적인 강제징집 반대와 평화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지방정부와 정당은 핵무기 설치 반대 운동을 지원하였고, 무기 거래를 통제하는 입안을 지지하는 형태로 평화운동은 전개되기 시작하였다.³⁵⁾

이태리의 평화운동은 1979년 NATO가 크루즈 및 퍼싱 미사일을 유럽의 국가에 설치하려는 결정의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이태리의 시실리 연안 지방인 코시모(Cosimo)에 크루즈 미사일의 기지를 설치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촉발되었다. 이태리 사람들에게는 비무장 운동에 대해서 특별한 성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첫째, 이태리인들의 경험에서는 역사적으로 군사적 전통의 기억이 없었다. 군사주의는 이태리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낯선 산물인 것이다. 둘째로 이태리는 로마카톨릭의 영향하에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코스모폴리탄적이었다. 1949년 이태리 의회가 NATO에 가입하려고 했을 때, 좌파, 사회당 그리고 공산당은 연합하여 반대운동을 펼쳤다. 의회는 이태리의 어떠한 영토도 군사기지로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안을 다수결로 통과시킬 수 있었다.

그 이후 1949년 구소련이 첫 번째 핵폭탄을 터뜨린 이후로 상황은 급격히 변했다. 소위 “공포의 테러”(balance of terror)가 현실적으로

35) Carlo Ruzza, “Institutional actors and the Italian peace movement: Specializing and branching out,” *Theory and Society*, 26(1997), pp. 87-88.

다가온 것이다. 사회당이 집권이후 이태리의 경우 군사적 관여까지도 NATO에게 허용하기 시작했다. 1970년에는 이태리 공산당(PCI)까지도 NATO를 “사회주의를 자유롭게 건설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방호막” 이라고 인정하기에 이르렀다.³⁶⁾

1983년 NATO 미사일 배치와 함께, 이태리의 다른 사회운동 예를 들면 페미니스트 혹은 학생 운동에 비해서 평화운동의 동원은 급속히 저하되었다. 그러나 다른 이태리 사회운동과는 달리, 평화운동은 다른 영역, 특히 종교 영역에서 다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 평화운동에 적극적이었던 이태리 공산당의 평화운동의 열기는 미사일 배치 반대 투쟁이 실패한 이후에는 다른 쟁점에 더욱 관심을 돌리기 쏠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리공산당과 평화운동 사이에 정기적으로 공감대와 교감이 이루어져 왔다.

카톨릭 교회는 여타 국가의 카톨릭국가에 비해서 덜 진보적 성향을 띠었다. 이태리처럼 카톨릭교회가 독점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교회와 국가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이익 보호에 전념하고 있었다.³⁷⁾ 그럼에도 크루즈 미사일 반대 운동 이후에 교회의 공식적인 위치는 점차적으로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상당한 교구에서는 정치적 주목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도, 평화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카톨릭 조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에 카톨릭교리들은 정치로부터 후퇴하거나 혹은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양자의 입장을 오고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종교적 신념

36) Ernesto Balducci, “Peace Movement in Italy,” in Choue, Young Seek(ed.), *World Encyclopedia of Peace*, 2nd ed, vol. 4(1999), p. 223.

37) Ruzza, *op. cit.*, p. 95.

을 정치적 신조에 뿌리를 두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신앙을 개인적인 영역에 국한시키고, 정치에 대한 개입을 거부하는 상반되는 태도들이 나타났다. 1986년 이후 카톨릭 평화 운동의 양상은 보수적인 교황 및 보수적인 카톨릭 단체 - 예를 들면 *Comunione e Liberazione* - 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측면에서 반전(反戰)적인 성향을 고수해 왔다.³⁸⁾

(5) 한국

한국인의 마음에는 평화의 문제는 본능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었다. 그것은 다분히 한국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지리적으로 한국은 중국, 러시아 및 일본과 같은 강대국에 둘러 싸여 있어서, 빈번히 이들 국가로부터 침략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다. 19세기에는 서구 국가에 의해서 한국은 개화 내지 개방의 압력 하에 놓이기도 하였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은 통일된 독립국을 이룩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종전(終戰)의 상황에서 일본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자마자, 미소 강대국에 의해 분할 통치되는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되었다. 남북분단이후 한국은 세계적인 냉전 구도의 상징이 되면서, 급기야는 한국전으로 비화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평화는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통일이라는 의제가 국가의 주요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력충돌을 통한 통일은 남북관계에서 무의미한 것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의 평화운동은 한국전의 종전의 시기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평화운동과 같은 유형의

38) *Ibid.*, pp. 108-109.

평화운동이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평화운동의 단체는 다른 시민 단체의 운동에 비해 규모가 적었다. 그럼에도 몇 가지 평화운동은 군부 독재 체제하의 민주화 시민운동, 환경운동, 산업평화운동 등의 형태로 명맥을 유지해 왔다. 그리고 한국의 평화운동은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평화운동으로 발전하기가 어려웠다.

우선 순수 민간 단체로서는 1994년 6월에 만들어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있다. 종교단체의 평화조직으로는 1993년 각 종교단체의 평화통일운동 조직들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협의회”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시민단체 산하의 조직에는 YMCA 산하 “서울 YMCA 평화교육 실천 교사회”와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산하의 “경실련 통일 협의회” 등이 있다. 그러나 “서울 YMCA 평화교육 실천 교사회”와 “평통사”를 제외하고는 평화보다는 통일이 우선적인 실천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³⁹⁾

한국의 평화운동은 남북한 대립의 상황에서 평화논리보다는 안보 논리가 더 강했다. 군부독재정권하에서 독재정권의 유지 수단으로 빈번히 북한에 의한 전쟁의 위협이 끊임없이 이용되어 왔다. 그리고 반전론자들은 친북주의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냉전반공논리는 평화논리를 늘 앞서는 것이었다. 평화논의는 그 당시의 정권유지자들에게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져 가혹한 탄압을 받아왔다.⁴⁰⁾

한국의 평화운동은 김대중 정부이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진전이 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국내의 평화운동

39) 차명제, “새로운 사회운동으로서의 평화운동: 유럽과 한국의 비교,” 『한국사회학회 94년 전기사회학 대회』(1994), p. 202.

40) 위의 글, p. 203.

의 새로운 형태는 월드컵 열기가 식기전인 2002년 12월 시청앞에서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두 여중생에 대한 애도와 불공평한 SOFA의 개정을 위한 ‘촛불시위’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거의 일년 가량 계속된 결과, 규모면에서 연인원이 500만명 이상 참여하였다. 1 주기 추모행사의 규모는 15만명에 이르렀고 시청앞 광장 등 국내의 89개 지역에서 행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여중생범위대”의 발표가 있었다. 그것은 반전운동이면서 동시에 반미운동의 성격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⁴¹⁾ 그것은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을 주적에서 삭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사건과 맞물리면서 국내의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극렬한 대립의 양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양측 모두 한반도의 평화와 전쟁 방지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이데올로기적으로 평화라는 목표 추구에는 일치를 보이면서,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격렬한 대립 양상을 보이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한국의 이라크파병 문제와 미국의 부시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높아지고, 이라크 내의 한국인 피살 사건과 맞물려지면서, 국내의 평화운동 역시 과거 월남전 당시 전세계적으로 일어났던 반전 운동의 전반적인 흐름이 재현되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는 것이다.

41) http://www.donga.com/fbin/output?f=c1s&code=c1_&n=200361201... (검색일 2004. 11. 17). 이 행사에 관해 강금실 법무장관은 전화를 걸어, ‘미국 국기를 훼손하지 말고 추모집회가 시위로 번지지 않도록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검찰측에서도 미 대사관 앞까지 진행을 강행하면 사법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당시 고건총리 역시 촛불시위가 한·미 우호관계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와 외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다.

IV. 평화운동의 시대적 과제:

미국의 평화운동 및 ‘미국에 의한’ 평화담론의 함의

평화에 대한 관심은 미국의 초기의 국부들에게도 주요 관심사의 하나였다. 조지 워싱턴을 비롯한 미국 헌법의 초안자들에게도 평화의 문제를 다루는 정부 부서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오랜 시일이 지난 후인 레이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이후 1986년 4월 14일에 비로소 미국평화연구소(USIP, United States Institute for Peace)가 설립되었다. 그 활동의 영역은 주로 초기에는 펠로십, 보조금(grant) 지급에 초점을 맞추었다. 2001년에는 개인과 연구소에 420만불의 기금을 지원하였고, 설립 당시의 여러 어려움과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1986년부터 2001년까지 6,284 건의 보조금 및 펠로십의 지원금이 약 3억 8천만불에 달하고 있다.⁴²⁾

1970년부터 1980년에 이르기까지 인권운동 및 NGO와 같은 단체들이 미국 및 남미 지역에 급속히 늘어났다. 그것의 대부분은 미국이 지원하는 중미의 내전 및 압제적인 군사 독재로부터 비롯되는 폭력의 문제 때문이었다. 지미 카터 정부는 인권을 강조하여, 평화운동집단들이 미 연방정부의 협력자임을 강조하면서 교회들이 남미의 빈곤층을 지원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1983년부터 1990년간 미국내의 NGO 그룹은 두배로 늘었고, 1981년부터 1990년 사이에 남미의 경우는 그 숫자가 거의 3 배에 달하게 되었다.⁴³⁾

42) Mary E. Montgomery, "Working for Peace While Preparing for War: The Creation of the United States Institute for Peace," *Journal of Peace Research*, 40:4, pp. 479, 494.

그러나 미국의 평화운동은 대부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형태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직간접적인 개입과 연관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세계적인 평화운동의 중심부에는 미국의 존재가 항상 자리잡고 있었다. 더욱이 9·11 테러 이후에는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행동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자체가 평화담론의 중심부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제 ‘미국으로 인한’ 평화담론은 뉴테러리즘 혹은 문명충돌론이라는 학문적 담론과 얹히면서 평화운동에 새로운 함의를 던져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⁴⁴⁾

전세계적인 반전운동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침공을 감행했다. 당시의 반전운동은 전례가 없는 대규모 반전운동이었다. 미국 내에서는 1960년대 베트남 반대 운동 이후 최대규모였고, 세계적으로도 역사상 최대규모를 였다. 전쟁 시작 전부터 대규모 반전운동이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동시에 반전운동이 일어난 것도 유례없는 일이었다. 지식인들 중에서는 미국이 오히려 국제테러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선도적인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했다.⁴⁵⁾

미국의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의 ‘평화 및 정의를 위한 캠퍼스 운동’(The Campus Movement for Peace and Justice)의 지도자인 오스트와일은 “미국의 외교정책이 나쁘다(harmful)는 사실이 반 라덴과 알 카

43) Virginia S. Williams, “Grassroots Movements and Witnesses For Peace: Challenging U.S. Policies in Latin America in the Post-Cold War Era,” *Peace and Change*, 29: 3&4(2004), pp. 419-420.

44) 부시 재선과 관련된 미국 대통령 선거의 출구 조사 결과, 투표자들에게 테러리즘 19%, 이라크 전쟁 15% 등 전쟁과 관련된 담론이 34%를 차지하고 있다. <http://news.bbc.co.uk/2/hi/americas/3973197.stm>(검색일 2004. 11. 4) 참조.

45) 대표적으로 촛스키 같은 이를 들 수 있다. 노암 촛스키, 박행웅, 이종삼 역, 『촛스키 9-11』(서울: 김영사, 2001) 참조.

에다 및 탈리반이 옳다(just)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우리의 담론은 부시와 빈 라덴에 관한 담론이 동일한 패턴으로 이분법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⁴⁶⁾

20세기는 전쟁의 세기였고, 미국의 세기였다. 20세기 전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서유럽 국가들의 쇠퇴를 가져오는 대신에 20세기 후반의 냉전은 소련의 해체로 막을 내렸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이데올로기 전쟁의 승리, 즉 3차례의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어떠한 강대국도 21세기 초반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2001년 9월 11일의 테러는 21세기 평화의 전망에 예상외의 전환점을 가져온 사건이었다. 이것은 급기야 부시 행정부의 “21세기의 첫 번째 전쟁”의 선포로 이어졌다.⁴⁷⁾ 그것은 뉴테러리즘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전쟁”⁴⁸⁾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형태의 전쟁 선포였다. 부시행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냉전시기와 구분되는 역사상 유례없는 전혀 새로운 안보위협에 도래에 대한 전쟁선포이다. 어떤 이유든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응은 영국을 제외한 전통적 동맹국들의 비판과 전 세계적인 차원의 반미주의에 직면하게 되었다.

후쿠야마가 1980년 후반의 ‘역사의 종언’에 대하여 헌팅턴의 ‘문명 충돌론’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은 헌팅턴의 시각을 입증해

46) Michal Osterweil and Rashm Varma, “The Campus Movement for Peace and Justice: One US response to September 11th,” *Development* 45:2, p. 107.

47) 이해정, “미국의 대테러전쟁: 21세기의 주권과 평화,” 제1회 비판정치학 대회(2003), p. 1.

48) Lawrence Freedman, “A New Type of War,” in Ken Booth and Tim Dunne, *Worlds in Collision: Terror and the Future of Global Order*(London: Palgrave, 2002), pp. 37-47.

주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물론 후쿠야마 자신도, 9·11 사태 이후 “역사의 종언”의 견해가 “문명의 충돌”의 견해에 뒤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⁴⁹⁾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헌팅턴의 문명충돌론의 적실성과 상관없이, 이 담론 자체가 던져주는 이데올로기성의 문제는 앞으로 평화운동의 방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공산주의의 종언은 곧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수용하는 분위기로 연결되었으나, 문명의 담론이 교묘하게 종교적 대립의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곧 그것은 테러리즘이 이슬람 근본주의라는 문제와 연관되어 질 때 미래의 평화운동 역시 좁혀질 수 없는 ‘이데올로기적’ 내지 ‘종교적’ 균열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입장 내지는 문명적인 시각에서 출발할 경우 미래의 평화운동은 결코 어떤 접촉점에서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여 평행선을 긋는 제로-섬의 관계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이다. 뉴테러리즘’ 대 ‘반테러리즘’의 전쟁이 이제 단순히 ‘반사적 민족주의’(reflexive nationalism) 대 ‘사려깊은 애국심’(reflective patriotism) 이상의 구도로 비화될 가능성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것의 위험성은 공공연한 것이든 묵시적이든 종교적 대결이기에 타협점을 찾기가 결코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⁵⁰⁾

즉 중동국가에 의한 테러리즘이 반미주의를 떠나서 ‘지하드’라는 정의의 전쟁으로 다시 부활되어, 무차별적인 자살폭탄 테러로 나타날 때

49) 프란시스 후쿠야마, “9·11 테러사태 이후의 세계질서,” 세계경제연구원(특별강연) 2003년 2월; 강정인, “문명충돌론: 국제정치이론의 새로운 대안인가?,” 『사상』 (2003 봄호) 참조.

50) ‘반사적 민족주의’ 및 ‘사려깊은 애국주의’에 대해서는 Robert Jensen, “Patriotism’s a Bad Idea at a Dangerous Time,” *Peace Review* 15:4(2003), pp. 389-390 참조.

이런 상황은 평화운동을 오히려 종교적 담론으로 이끌어 갈 소지를 높이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종교 테러는 역사적으로는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냉전 이후 새로운 밀레니움의 시기에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함의를 던져주는 것이다.⁵¹⁾ 9·11 테러는 완료형이 아니라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미국의 반테러 전쟁은 “전세계적, 전방위적 반테러작전”으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이 문제가 국가간의 전쟁처럼 승리와 패배가 분명한 경우라면, 그 시점이 일단 평화 구축의 시점이 될 수 있는 반면, 테러는 현재진행형이면서 무한정한 미래진행형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평화운동을 주도 이들을 더욱 고민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특정 국가에 대한 호소 이전에 무국적 행위자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평화운동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익명의 테러리스트들을 향해 공허한 외침을 계속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그들의 반응이 종교적인 언어로 대응하게 될 때 타협의 여지가 없게 된다는 점이다. 평화운동에서의 우선 순위는 전쟁의 종교적 담론화에 맞설 수 있는 ‘담론 구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현재 전지구적 현안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평화운동이 염두에 둘 우선 과제라 하겠다.

V. 요약 및 결론

일반적으로 평화의 개념은 그 사상적인 기원을 종교적 것에서 비롯

51) 장병욱, “이슬람 원리주의와 테러리즘,” 『한국중동학회 논총』, 제 23-1호(2002), pp. 8-9.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평화의 개념은 대체적으로 전쟁과 관련되어서 논의되기 시작했고, 전쟁 부재의 삶의 세계를 구현하려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전쟁 혹은 전쟁과 관련된 개념들이 새롭게 개념화되고 정의되면서 평화를 실현하려는 목표와 성격도 많이 변화하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전통적 '안보'의 개념에서 벗어나 '인간안보'라는 개념으로 그 강조점이 옮겨지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전쟁 부재에 대한 이해로 시작된 평화의 개념은 점차 확대되어 종전에 전혀 평화와 무관했던 사회의 모든 문제를 다 포괄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평화의 개념은 사회적 갈등과 관련된 대부분의 쟁점을 다 수용해야 할 만큼 다양해졌다. 어떤 의미에서 평화 개념은 혼돈스런 개념으로 변모하고 말았다.

학문적으로 평화 개념은 '평화연구' (peace research)를 통해서 개념화가 진행되었고, 사회적 인식의 지평을 넓혀 갔다. 나아가서 그 개념화를 기초로 평화운동을 통해 현실적인 평화의 실천 및 적용시키려는 노력이 뒤따라 왔다. 그러나 평화 개념이 넓은 의미로 해석되면서 평화 개념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평화운동은 그 운동의 목적의 실효성을 잃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평화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의 문제가 후속적인 평화 운동 및 평화교육의 성격과 방향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것은 평화운동의 커리큘럼과도 밀접히 연관되는 것이다.

평화운동의 기원은 기독교적 배경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 그후 소위 국제평화운동은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전쟁의 수단이 아닌, 또 소수의 강대국의 결정과 간섭없이 유럽 국가간에 협약, 중재를 통해 영구적인 세계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

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부터는 운동적 차원 이외에도 평화 및 평화적 갈등 해결에 대한 연구가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사설 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양쪽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부단히 확대 심화되어 왔다.

평화운동이 반전과 관련된 것과 동시에 다양한 사회 갈등적 테제를 수용한다 할지라도, 종국적으로 평화운동의 성격에 가장 큰 영향을 요인은 무엇보다 전쟁이라는 변수이다. 전쟁의 경험은 종전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던 평화운동의 성격 자체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거기에 소위 ‘문명충돌’이라든가 ‘이슬람 근본주의’라든가 다분히 단시일내에 화해될 수 없는 담론- 특히 종교적 신념 - 이 개입하게 될 때, 평화운동의 논의와 방향자체가 종교적 담론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화해될 수 없는 종교적 담론은 그 전쟁이 정의로운 전쟁(just war) 이든 지하드(성전)이든, 그 담론의 빈번한 언급 자체가 평화운동의 방향에는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것이다. 뉴테러리즘의 성격이 그 피해를 주는 방식은 더욱 커진데 비하여, 그리고 어느 때 보다 종교적 언어로 정당화되고 있기 때문에 - 그것이 미국이나 서방세계에 의해 과장되어 나타나든 아니든간에 - 결코 타협의 여지가 없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평화운동의 우선 순위는 전쟁의 종교적 담론화에 맞설 수 있는 ‘담론 구성’이 우선과제라 하겠다. 평화운동은 시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해될 수 없는 담론을 화해할 수 있는 담론으로 흡수하는 일이 우선이다. 그 이전의 평화운동은 운동이 중요시되었으나 이제는 ‘문명충돌론’의 우세를 잠재울 ‘대안 담론’(counter-discourse)이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 Abstract |

Peace Movement and Its Implication: Assessments and Propects

Until most recently, the subjects of peace studies have come to encompass diverse issues deriving from social conflicts, let alone concern about the very 'wars'. In this sense, the term 'peace' is a vague concept. In retrospect, drawing upon western experiences concerning peace movements, they hav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seeking and building peace. By contrast, new terrorism and the US-led responses to a new type of war have influenced the future trajectory of peace movements to a greater extent than any other issues. Such events require a reinterpretation of the relevance for conventional peace movements. The seemingly 'war of discourse' such as "the Clash of Civilization" seems to negatively have affected overall tenets of peace movements. Under the circumstances, we need to consider undertaking peace movements with a focus on 'counter-discourse' so that they may evade an irreconcilable 'war of discourse' among social movements underpinning religion-connoted strifes and the likes.

〈참고문헌〉

- 강명세, “네덜란드의 신정치 운동: 평화운동,” 『경제와 사회』, 30호(1996 여름호).
- 강미현, “Bismarck 시대 독일의 평화운동과 제국창건이 유럽에 미친 영향,” 『부산사학』, vol. 23(1992).
- 강양희, 양애경, 정숙영, 『한국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의식과 발전방향』(서울: 여성개발원, 2000).

- 강정인, “문명충돌론: 국제정치이론의 새로운 대안인가?,” 『사상』(봄호, 2003).
- 고세훈, “영국의 평화운동: CND의 부침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28호(겨울호, 1995).
- 김승재, 이학곤, 『평화와 평화상』(서울: 서울평화상문화재단, 2004).
- 김열수, “테러리즘 근절이 어려운 이유: 제도화의 한계와 국제사회의 균열,” 『국가전략』, 제3권 3호(2002).
- 박종화,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평화사상과 평화운동,” 최상용 편, 『현대평화사상의 이해』(서울: 한길사, 1992).
- 안병진, “9·11 테러와 미국의 외교노선: 연속성과 단절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3집 4호(2003).
- 오진곤, “전쟁과 과학자의 평화운동,” 『과학사상』, 15호(1995년 11월).
- 이신화, “탈북자와 인간안보,” 『사상』(2001 여름호).
- 이정옥, “여성인권의 글로벌 스탠다드와 성매매 종사 여성의 인간안보: 한국 기지촌 여성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 20권 1호(2004).
- 이현경, “국제사회의 테러유형·동향과 국제안보환경,” 『평화연구』, 11:3(2003).
- 이혜정, “미국의 대테러전쟁: 21 세기의 주권과 평화,” 제1회 비판정치학 대회(2003).
- 임성호, “도그마와 컨센서스 사이: 테러시대의 미국민주주의,” 『사상』(2002년 봄호).
- 장병욱, “이슬람 원리주의와 테러리즘,” 『한국중동학회 논총』, 제 23-1호(2002).
- 정 응,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국제정치논총』, 제 44권 2호(2004).
- 차명제,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의 활성화 가능성,” 『한독사회과학논총』, 제 4호(1994).
- 차명제, “새로운 사회운동으로서의 평화운동: 유럽과 한국의 비교,” 『한국사회학회 94년 전기사회학 대회』(1994).
- 채재병, “국제테러리즘과 군사적 대응,” 『국제정치논총』, 제44집 2호(2004).
- 최현미, “리처드 콕턴(Richard Cobden)과 19세기 국제평화운동과의 관계,” 『대구사학』, vol. 72(2003).

- 츨스키, 노암, 박행웅, 이종삼 역, 『츨스키 9-11』(서울: 김영사, 2001).
- 후쿠야마, 프란시스, “9·11 테러사태 이후의 세계질서,” 세계경제연구원 특별 강연(2003년 2월).
- Aron, Raymond, *Peace and War*(New York: Doubleday, 1966).
- Balducci, Ernesto, “Peace Movement in Italy,” in Choue, Young Seek (ed.), *World Encyclopedia of Peace*, 2nd ed., vol. 4(1999).
- Barash, David P., “Historical Views of Peace,” in Choue, Young Seek (ed.), *World Encyclopedia of Peace*, 2nd ed., vol. 4(New York: Oceana Publications, Inc and Seoul: Seoul Press, 1999).
- Brock-Utne, B., *Feminist Perspective on Peace and Peace Education* (New York: Pergamon Press, 1987).
- Castro, Loreta, N., “Peace and Peace Education: A Holistic View,” in Choue Young Seek(ed.), *World Encyclopedia of Peace*, 2nd ed., vol. 4(New York: Oceana Publications, Inc and Seoul: Seoul Press, 1999).
- Choue, Young Seek(ed.), *World Encyclopedia of Peace*, 2nd ed., vol. 4 (New York: Oceana Publications, Inc and Seoul: Seoul Press, 1999).
- Cooper, Sandi, “Peace Movement of the Nineteenth Century,” in Choue, Young Seek(ed.), *World Encyclopedia of Peace*, 2nd ed., vol. 4(1999).
- Dungen, Peter Van Den & Wittner, Lawrence S., “Peace History: An Introduc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0, 4(2003).
- Freedman, Lawrence, “A New Type of War,” in Ken Booth and Tim Dunne, *Worlds in Collision: Terror and the Future of Global Order*(London: Palgrave, 2002).
- Galtung, Johan, “Twenty-five years of peace research: Ten challenges and responses,”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22(1985).

- Ikenberry, G. John and Moravcsik, Andrew, "Liberal Theory and the Politics of Security in Northeast Asia," Conference on Security and Securitization: How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Are Securitized, Hosted by Ilmin International Relations Institute, Korea University Sponsored by the Ford Foundation, January 30, Millenium Seoul Hilton Hotel, Seoul, Korea(2004).
- Jensen, Robert, "Patriotism's Bad Idea at a Dangerous Time," *Peace Review*, vol. 15, 4(2003).
- Montgomery, Mary E., "Working for Peace While Preparing for War: The Creation of the United States Institute for Peace,"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0, 4(2003).
- Osterweil, Michal, and Varma, Rashmi, "The Campus Movement for Peace and Justice: One US response to September 11th," *Development*, vol. 45, 2(2002).
- Rucht, Dieter, "The Challenging Role of Political Protest Movements," in Herbert Kitschelt and Wolfgang Streek(eds.), *Germany: Beyond the Stable State*(London: Frank Cass Publishers, 2004).
- Ruzza, Carlo, "Institutional actors and the Italian peace movement: Specializing and branching out," *Theory and Society*, 26(1997).
- Tiefer, Leonore, "The Emerging Global Discours of Sexual Rights,"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28(2002).
- Williams, Virginia S., "Grassroots Movements and Witnesses For Peace: Challenging U.S. Policies in Latin America in the Post-Cold War Era," *Peace and Change*, vol. 29, 3&4(2004).
- http://www.donga.com/fbin/output?f=c1s&code=c1_&n=200361201...
(검색일 2004. 11. 17).
- [hwp://news.bbc.co.uk/2/hi/americas/3973197.stm](http://news.bbc.co.uk/2/hi/americas/3973197.stm)(검색일 2004. 11. 4)